



## 양계안테나

### 농업·농촌 종합대책 119조원 투입자 정부와 농민 함께 노력해야 성공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선진국과 경쟁해서 이기는 농업, 1인당 소득이 도시근로자에 버금가는 농업인, 가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10년간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 투입자 계획을 밝혔고, 농림부는 지난 6월말 축산분야 농업·농촌 종합대책 후속조치 구체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에 본회에서는 양계분야 종합대책을 세우고자 학계, 연구계, 농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질병·위생, 시설·환경, 경영·수급, 검정·개량 등 4개분야 6개 T/F팀을 구성하여 1개월여 동안 각 팀별로 기본대책(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수 양계인 및 양계관련 인사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당시 10년만에 찾아온 8월의 무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직원들은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각 팀장들은 경기도 모처에서 합숙하면서 양계분야 종합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한 결과 총 27건에 72개항의 양계분야 종합대책(안)으로 집약되었다. 이 중에서 업종별 주요사항을 보면 첫째, 공통분야에서는 닭개량 사업으로 체계적인 검정을 통해 국가정책지표 제시 및 농가 수익증대를 꾀하고 가금위생안전관리기술지도센터 설치, 운용을 통한 양계 질병, 방역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며, 둘째, 종계분야는 종계입식마리수를 쿼터로 묶어 적정 양계산물 생산을 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산란분야는 공판장을 설치하여 공정한 기준가를 발표함으로써 계란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로 잡고, 넷째, 육계분야는 표준사육계약서의 정착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도록 한 것이 기본 골자이다.

문제는 지난 1992년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으로 2002까지 10년 동안 42조원을 농업·농촌에 쏟아 부었는데 과연 당초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났느냐는 지적들을 한다. 전문가들은 당시 막대한 농업·농촌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이 국제경력을 갖췄거나,

또 농촌의 생활이 기대만큼 윤택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빛만 늘어나고 소득수준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들어 이번 119조원 지원대책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아무튼 이번에 내놓은 119조원 투융자 계획은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에서 나온 것임은 틀림없다 하겠다. 문제는 우리 농축산업 일부 품목에 대한 현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현안에 접근하느냐는 것이다.

과거 정부대책은 농업경쟁력 제고에 치중하였으나 금번 대책은 농업·농촌·농업인 정책을 분리하되 상호 균형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다. UR때는 품목별 경쟁력 제고, 생산기반 정비, 유통시설 등 농업인프라 구축에 치중하였으나 이번에는 규모화 한 전업농 및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육성 등 소득안정과 농촌지역개발에 중점이 두어졌고, 특히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과거의 대책에는 수립 후 보완절차가 없었으나 이번 대책은 3년 단위로 평가해서 농정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란다. 추진방식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농과대학 등이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으로 볼때 과거의 정책이 상당부분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듯싶다. 이제는 실천만이 남았다. 돈을 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나갈 곳에 잘 나갔는지, 농촌의 생활이 좀더 윤택해 졌는지 등등 사전 사후 관리와 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앞으로 119조원 투융자 계획이 지난 UR과 같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농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보균 경영지도팀장)

## 우량병아리 생산을 위한 노력 국내 양계업 발전의 초석

양계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중 우량병아리 생산은 전체적인 양계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우량병아리 생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년 여름 혹서로 인해 다수의 종계장에서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AI, ND 등 질병 피해가 끊이지 않는 등 아직도 종계장과 부화장의 시설과 위생방역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고가 사료시대를 맞이하여 사료의 품질문제까지 거론이 되면서 병아리의 품질저하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질병·방역을 위한 노력으로 각 종계장과 부화장에서의 개인·차량소독시설의 비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현행 지원

되고 있는 ND, MG 백신의 계속지원과 우수한 소독약 공급과 공급물량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살모넬라와 ND등 1종전염병 발생시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살처분 보상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질병을 양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편, 사료의 위생 및 품질 검사를 강화하여 믿고 쓸 수 있는 사료가 농장에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 하겠다.

우량병아리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국내 양계산업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황일수 자조금사업팀장)

## 양계업계 발전모색 관심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이든 어떠한 조직이건간에 권한이 부여되는 반면 책임과 의무사항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모름지기 이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개인이든 조직 또는 기업이 융성하게 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책임과 의무사항을 뒤로한채 무턱대고 권한만 주장한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기대치는 그야말로 뻔하게 나타나기 십상이다.

이와 관련, 전체 축산농가 가구수 대비 축산관련 협회에 가입한 회원수를 헤아려 볼 경우 타 축종인 양돈업계 및 낙농육우업계와 비교하여 우리 양계업계는 전체적인 양계업 종사자에 비해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수는 턱없이 적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은 분명 자랑거리가 못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공방은 현 집행부의 회원확보에 대한 노력 미흡과 홍보의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깊은 자성을 하며, 더욱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회원확보에 전력질주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양계업을 자신의 천직이라고 자부하는 양계인들은 당연히 협회가입을 권유하고 싶은 심정이며, 결국 이들이 우리 양계업계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야 어느 정도의 국내 양계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확보케 된다.

최근 협회에서는 국내 양계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여러 양계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

날로 급변해 가는 국내 양계산업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더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협회 회원을 비롯한 양계인들도 양계협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조종수 업무지원팀장) **양계**